

서남권 · 동북권 르네상스로 도시균형발전이 실현됩니다.



# 권역별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



2011년 3월호(통권 22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 ◇ 서남권 르네상스

- 금천구 시흥 뉴타운, 역사·문화가 숨 쉬는 주거지로 탈바꿈 ..... p 1
- 부천 ~ 서울간 서부 수도권 연계교통망 확충 ..... p 3
- 여의도 교통지도 확 바뀌 교통정체 해소한다 ..... p 3

### ◇ 동북권 르네상스

-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 p 5
- 종량구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심의 ..... p 5
- 응봉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심의 ..... p 6

### ◇ 알립니다

- 서울 도시계획 한곳에 모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운영 ..... p 7
-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9건 종합 정비 ..... p 8

## 금천구, 시흥 뉴타운 역사·문화가 숨 쉬는 주거로 탈바꿈

- 시흥 1, 2촌치정비구역 촉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 2017년까지 총 4,614세대(임대 786세대) 공급 예정
- 전체 세대수의 50% 소형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조선시대 시흥현의 관아와 행궁 자취 느낄 수 있는 관아터 공원 조성
-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안전하고 장애 없는 친환경 주거문화 실현
- 시흥 뉴타운, 서남권 르네상스 신경제 거점지역의 신흥주거지로 급부상 할 것

서울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와 919번지 일대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숨 쉬는 시흥 뉴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2월 17일(목) 시흥 뉴타운 내 촌치정비구역인 시흥1구역과 시흥2구역을 모두 촉진구역으로 지

정해 용적률 253~258%를 적용, 2017년까지 지상10~32층 아파트 47개동에 총 4,614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흥 뉴타운은 전체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2,279세대를 소형주택(60㎡이하)으로 공급, 서민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촌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준용적률 상향계획까지도 포함해 1년 이상의 사업추진 일정을 단축하는 효과도 얻었다.

시흥 뉴타운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이를 중심으로 광역적 녹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역사와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조선시대 시흥현의

#### 관아와 행궁 자취 느낄 수 있는 관아터공원 조성

시흥 뉴타운 중심부엔 과거 조선시대 시흥현의 관아와 행궁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관아터 공원이 새로

조성된다.

**관아터 공원**은 1,000년 수령의 은행나무와 함께 관아건축물 축조 및 부조벽화를 도입한 가로와 체험마당 등으로 과거 조선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돼 금천구의 역사를 상징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어린이·금빛·폭포공원과 연계해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적 녹지체계 구축

이 외에도 1구역 관악산 자락에는 어린이공원(삼성산, 보호수 공원)이 조성되며, 이미 조성된 금천로의 금빛공원, 시흥대로의 폭포공원과 함께 관아터 공원을 중심으로 연계해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적 녹지체계를 구축,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관아터 공원 조성도>

건고 싶은 녹지가로를 위해 각 구역별 건축한계선을 5~10m로 설정했고, 2구역 관악산 자락에는 건축한계선 이외에 8~23m의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해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 관악산 능선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형성 및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다양한 층수계획으로 관악산 능선과 조화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시흥대로와 관악산을 연결하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단지별 특색과 대지여건을 고려해 건축

물의 입면 및 형태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장애 없는 친환경 주거문화 실현

시흥 뉴타운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단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단지를 설계한다.

어린이 놀이터 우범화 방지설계로 우범지역의 사각지대 또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으로 장애우와 노약자, 여성 등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특히 스포츠교양센터 같은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등으로 여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여성 친화적 단지설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번 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흥 뉴타운은 서남권 르네상스 신경제거점지역의 신흥 주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위치도>

(재정비2과 ☎ 2171-2213)



## 부천 ~ 서울간 서부 수도권 연계교통망 확충

- 2012년, 부천 여월택지지구에서 남부순환로를 잇는 광역도로 완공
- 서울시 구간(0.9km).. SH공사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진행중, 2011년 5월 완공
- 부천시 까치울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부천시구간(1.1km), 부천시에서 공사 시행, 2012년 8월 완공예정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의 혼잡 교통량을 분산하고, 부천~서울간 서부 수도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2년까지 광역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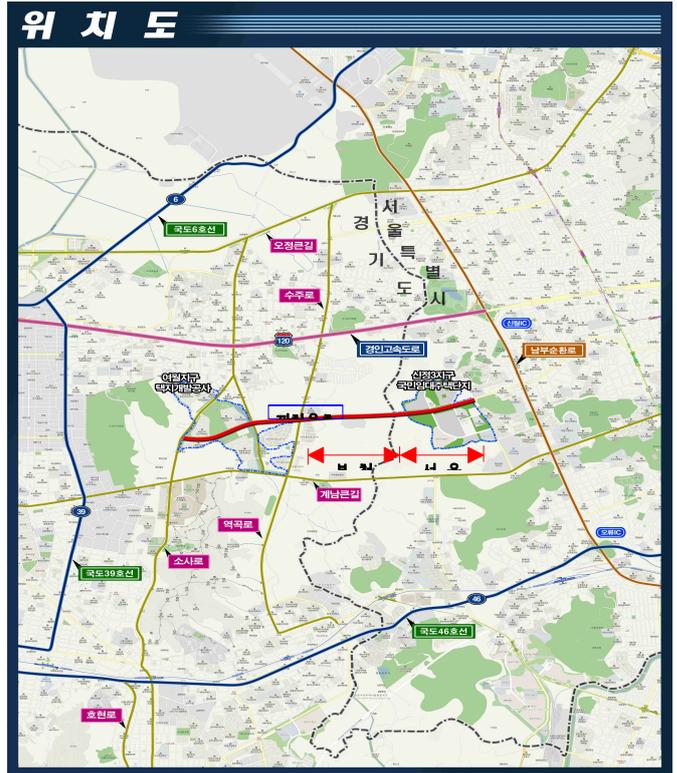
이 광역도로는 부천시 오정구 여월택지지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택지지구까지 연결되며, 길이 2k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개설된다.

여월택지지구에서부터 신정3지구전까지의 부천시구간은 이미 지난해 2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강월초교 앞까지의 서울시 구간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 구간의 공사는 오는 5월 완공될 예정이며, 부천시 구간은 2012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서부지역과 부천시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발생 등으로 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부천시의 경계지점인 지향산 시계터널 공사(가칭)'를 위해 2월 17일 실시계획을 공고, 향후 터널구간의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부천시에서 지향산 시계터널 140m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 서울간 위치도>

(도로 계획과 ☎ 3707-8529)



## 여의도 교통지도 확 바뀌 교통정체 해소한다

- 서울시, 여의도 일대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대방동 지역 연계 보완 방안 마련 착수
- 여의교 남단 ~ 여의교 북단 여의교 8차로 → 9차로로 확장
- 여의교 남단에 노들길로 바로 진입 가능한 교차로 설치
- 올림픽대로 → 여의도 진입 정체 해소 위해 63빌딩 앞 삼거리 → 서울교 방면 좌회전 금지
- 서울교 서측에 진입램프 신설해 여의도 진입 차량 분산 시킬 계획
- 대방역 ~ 여의교 구간 지정체 해소 위해 대방지하차도 구간 확장 검토 예정
- 2월 기본계획용역 착수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예정

2014년이면 여의도 일대 교통지도가 확 바뀌어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일대 주요 도로망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와 여의도 남측 대방동 지역과의 연계성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 여의교 남단~여의교북단 여의교 8차로→9차로로 확장

서울시는 우선 용호로 구간 중 8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여의교 남단 ~여의교 북단의 원효대교 방면 1차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여의교 남단~여의교 북단 원효대교 방면은 2개 차선이 좌회선 차선이고 1개 차선은 직진, 1개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차선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효대교 방면의 교통이 항상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확장되는 1개 차선은 원효대교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여의교 남단~여의교 북단 사이(여의교)에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 여의교 남단에 노들길로 바로 진입 가능한 교차로 설치

서울시는 대방역 앞 혼잡 개선을 위해 노들길↔여의도간 교차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여의도와 노들길은 십자 형태로 여의도에서 노들길로 바로 진입이 어려워 대방역 앞까지 와서 유턴해야 해 이 일대 교통이 항상 정체되고 있다.

이에 여의교 남단에 노들길로 바로 진입 가능한 교차로를 설치해 노들길 이용 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 올림픽대로→여의도 진입 정체 해소 위해 63빌딩앞 삼거리→서울교 방면 좌회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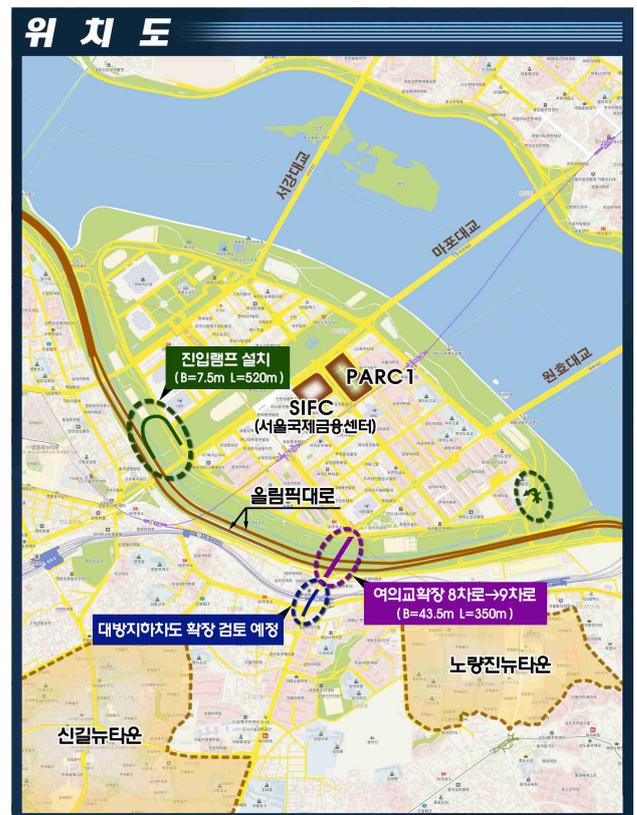
서울시는 올림픽대로~여의도 주요 진출입 지점인 여의상류 IC 및 여의하류 IC구간 지정체 해소를 위해 63

빌딩 앞 삼거리→서울교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고, 서울교 서측에 진입램프를 신설해 올림픽대로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 대방역~여의교 구간 지정체 해소 위해 대방지하차도 구간 확장 검토 예정

서울시는 대방역~여의교 구간 지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4차로인 대방지하차도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여의도 일대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동작구 뉴타운 사업 등 여의도와 주변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동작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대방지하차도 구간에 대해 주변 접근 체계와 교통흐름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지하차도 확장 및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의도 일대 교통로 위치도>

(도로 계획과 ☎ 3707-8529)



##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 서울시, 2월 17일(목)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 30% 내외 토지기부채납,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최고높이 150m, 최고 50층, 평균 30층 한강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포함, 8,247세대 건립 예상

'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가 1동 72-10번지 일대「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2월 17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으로 조합 설립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후 각 지구별로 성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걸맞는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게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부분이 2층 7층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되며,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토록 했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이 많은 만큼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성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한 건립 가능 세대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 세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건축기획과 ☎ 3707-8325)



## 종량구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심의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서울시는 2월 9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량구 면목동 371번지 일대 9,502.9㎡에 대한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37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당 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낙 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기성시가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서울시 역세권에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 서민 이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심의 이후 사업주체는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장기전 세주택 84세대, 일반분양 215세대, 총 299세대를 공급 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37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은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역세권일 뿐 아니라, 간선 도로인 용마산길과 동부간선도로가 통과하여 도심 및 부도심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동측에 용마폭포공 원과 용마산이 인접하며, 인근에 이문휘경뉴타운, 중화 뉴타운, 상봉촉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 이며 이러한 편의성과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 시프트 입주자 모집 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마산길 가로경관을 고려 한 건축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공지 등의 확보를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주변의 경관을 보 호하고 시각적 폐쇄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경축을 확 보하고, 적정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지역내 필요한 소공원을 확보하고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으며, 지역 커 뮤니티 지원시설을 위해 휘트니스센터를 확보하였다.

금번 중랑구 면목동 37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심의통과로 면목동 주변의 주거 및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용마산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 택 공급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마산 역세권 조감도>

(도시관리과 ☎6360-4820)



## 성동구 응봉동 193-1662번지 일대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심의

###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서울시는 2월 9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하여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5,587㎡에 대 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을 심의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정비계획(안)은 당 해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근린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 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양호한 주거단지로 거듭 날 예 정이다.

**결정 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35,587 ㎡, 용적률 218%, 건폐율 30%이하로 최고 층수 17층 으로 총 세대수 494세대가 건립된다.

응봉1구역은 한강과 증량천이 동시 조망이 가능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응봉산근린공원, 서울 숲이 입지하는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연과 어울려진 친환경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봉산 자락 30m의 고저차를 갖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럽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해 일부 훼손된 응봉산을 복원하는 계획을 하였다.

아울러, 인근 응봉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의 기존 8m의 협소한 통학로를 15m로 확폭하고 제외되었던 북측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소공원과 사회복지시설 조성하여 응봉동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조감도>

(도시관리과 ☎ 3707-8138)



알립니다

서울 도시계획 한 곳에 모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운영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져

- ① 통합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 ② 서울시 도시계획 현황을 지도에서 손쉽게 확인
- 찾기 쉽고 알기 쉬워진 도시계획, 시민과의 거리감 해소 기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그동안 여러 웹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되던 서울 도시계획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도시 계획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련 정보를 통합한 '서울도시 계획포털'을 2월 21일(월)부터 운영 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은 통합된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도와 그림을 활용해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쉽게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를 대체하게 된다.

### 통합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서울도시계획포털'은 도시계획 소개, 주요계획과 사업,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입안결정 안내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역의 도시계획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는 도시계획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검색어 하나만 입력하면 연관된 모든 도시계획 정보를 종류별로 나타내주며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을 같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 통합검색창에 '서대문구'를 입력하면 서대문구의 지구단위계획,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의 도시계획 현황과 열람공고결정고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입력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어해설과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현황, 지구단위

계획 관련 열람공고·결정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검색 기능은 도시계획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한 기능으로서 정보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지도에서 손쉽게 확인

지도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을 검색하고 싶다면 지도 기반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도기반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는 서울시의 용도지역·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현황과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관련 각종 사업들의 위치와 세부내용,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번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찾는 지번의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행위제한 내용,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2차원 지도와 3차원 지도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2차원 지도에 표시되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을 3차원 지도에서 확인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알 수 있다.

###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과의 거리감 해소 기대

그동안 도시계획 분야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든 점 때문에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정작 시민들은 거리감을 느껴 왔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통해 시민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계획포털 화면〉

(도시계획과 ☎6360-4752)



알립니다

##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9건 종합정비

- 도로,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폐지·변경 등 정비방안 마련 예정
- 사업 시행되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총 1,509건, 73.6km<sup>2</sup> 존치 여부 결정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화 될 시 약 8조 648억원 토지보상비 소요되는 큰 규모
-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 민원 최소화 기대
-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본격 발효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1,509건을 종합 정비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장기화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혹은 변경·폐지 할지 여부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월 20일 밝혔다.

### 미시행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총1,509건, 73.6km<sup>2</sup>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오랜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6,441건 368.22km<sup>2</sup> 중 총1,509건 73.6km<sup>2</sup>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도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며, 이외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이다.

이렇게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 될 시 약 8조 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경과 시까지

#### 사업 미시행하면 효력 상실

한편, 정부도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을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계획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설계획과 ☎ 6360-4774)

권역별 르네상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seoulwithyou (트위터)
- ✓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 동북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bukseoul>
- ✓ 서남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amseoul>